15, September, 2025 Vol. 102

E S G

| Bi-Weekly |

신영 ESG

" 공급망 관리가 사모 투자 성과의 핵심으로 떠올라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F&F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MXF)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공급망 관리가 사모 투자 성과의 핵심으로 떠올라

PRI, 사모 시장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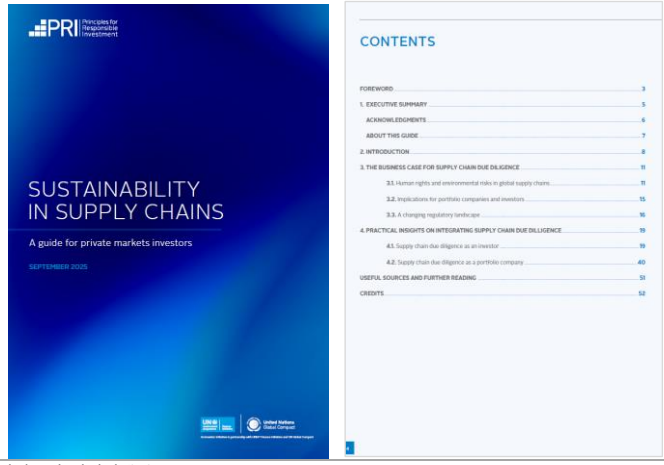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가 투자자와 회사의 중장기 가치 창출 및 보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PRI는 사모 시장 투자자를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함

지난 2일(현지시간) 글로벌 책임투자 업계의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는 UN 글로벌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사모 시장 투자자를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함. 주로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에 투자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가 투자자와 회사의 중장기 가치 창출 및 보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음.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과 ESG 리스크가 투자 성과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게다가 세계 각국의 규제와 무역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등도 공급망 관리에 새로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음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ESG 리스크가 투자 성과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게다가 세계 각국의 규제와 무역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등도 공급망 관리에 새로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보고서는 사모 시장 투자자들이 기존의 단순 리스크 회피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공급망 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식별·관리함으로써 가치 창출과 보호 더 나아가 성공적인 투자 회수(Exit)를 달성하는 전략적 전환기에 있다고 주장함.

도표 1. PRI의 사모 시장 투자자를 위한 공급망 실사 가이드 라인 발표



자료: PR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공급망에 대한 책임 있는 실사(due diligence) 및 리스크 관리가 법적 의무로 확장되는 중이며, EU CSDDD, 미국 UFLPA 등 국제 규제·지침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을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동과 공급망의 복잡성·다양성 증가 및 정보 비대칭, 공급망 가시

성 부족 등은 ESG 실사 및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투자자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장기 리스크 관리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관리-기업 참여-지속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PRI는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실무 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에 PRI는 공급망 실사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가치 창출 및 보호의 전략적 원동력이자 출구 준비성을 강화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며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를 통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모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 지점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공급망 실사 범위는 투자 전 스크리닝 단계부터 보유기간 모니터링, 투자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됨

공급망 실사 범위는 투자 전 스크리닝 단계부터 보유기간 모니터링, 투자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됨.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전체 투자 주기에 걸쳐 성과 개선을 모니터링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책임 투자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만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단계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PRI의 가이드라인은 ▲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는 산업, ▲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시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및 포트폴리오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공급망 주제를 초기 투자 선별 및 실사에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 ▲ 투자자의 영향력에 따라 공급망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 하도급 위험 관리 등을 제공함.

도표 2. 투자 주기 단계별 표준 및 활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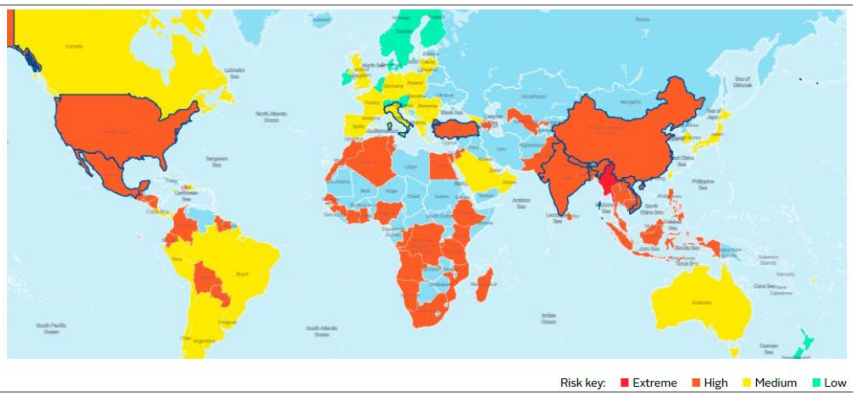
	1. Governance and policies	2. Early due diligence screening	3. Due diligence	4. Decision and agreement	5. Engagement and monitoring	6. Exit and re-investment
Standard practice	• Sustainability policies and principles • Exclusion lists	• Materiality assessment •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 Review of Supplier Code of Conduct and sustainability policy • Screen for sanctions, media allegations etc. at portfolio company level	• Risk exposure and maturity assessment (inhouse or with third party) • Document reviews • Management interviews	• 100-day action plan •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on plan	• Developing policies • Monthly media screens • Staff training, knowledge sharing and networking sessions • Post-investment visits • Monitoring and reporting • Regular impact assessments	• Ensuring relevant policies and processes are in place and documented
Leading practice	• Dedicated supply chain policies • Clearly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 Management leadership and board involvement at portfolio company • Training • Data and systems (e.g., sanction screenings, survey tools, etc.)	• Third-party risk assessment • On-site assessments • Screen for sanctions etc. at supplier level • Product-level screenings/ certifications and standards	• Supply chain mapping (priority products/ suppliers) for high priority/risk suppliers • Spot checks of high-risk suppliers • Stakeholder engagement with suppliers, NGOs, etc.	• Including performance clauses in agreements	• Establishing relevant teams • Escalation plan and remediation procedures • Grievance mechanisms and handling of complaints • Engagement with affected stakeholders • Crisis management plan (at investor level)	• Screening new buyers for alignment with priorities

자료: PR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공급망의 위험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르며, 포트폴리오 기업이 성숙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때 이러한 위험은 완화될 수 있음

공급망의 위험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름. 이에 투자자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 인권 및 환경적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포트폴리오 기업의 공급망 위험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함. 특히 포트폴리오 기업의 공급망 위험 및 관리 관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함. 이러한 심층적인 평가는 특히 고위험 국가 및 산업에서 운영되거나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중요함. 포트폴리오 기업이 성숙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때 이러한 공급망 위험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임.

도표 3.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위험 수준의 글로벌 현황



자료: EiQ, PR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을 선결해야 할 과제임 → 많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가 1차 협력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리스크가 그보다 하위 단계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보고서는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함. 이는 많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가 1차 협력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강제노동·열악한 근로조건 등 심각한 리스크가 그보다 하위 단계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선도 기업들은 공급망 매핑을 통해 위험 지역과 산업을 우선 점검하고, 이를 투자 실사에 반영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공급망을 면밀히 파악하면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음 →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PRI는 공급망을 면밀히 파악하면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보호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이 견고한 공급망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여기에는 공급망 매핑, 목표 위험 평가, 집중적인 실사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교육 및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같은 위험 완화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야 함.

아직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사모 투자 상품에는 ESG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금번 PRI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사모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아직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사모 투자 상품(PEF 등)에는 ESG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ESG 적용 자산이 주식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번 PRI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사모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LG엔솔, 벤츠에 차세대 배터리 공급…계약 규모 15조원 추정

- 미국·유럽서 150만대 생산물량…벤츠 주력 공급사 공고화
-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최대 규모 공급계약… 기술력 입증
- CATL 등 중국 업체 따돌려…글로벌 시장서 추가 수주 기대시장서 추가 수주 기대

Comments

- 46파이 배터리 수주 건으로 추정하며, 미국은 애리조나 신공장을 통해, 유럽은 폴란드 공장 일부 라인 전환(기존 파우치)을 통해 대응 예정인 것으로 추정
- 기존에 OEM 대상 북미 46파이 배터리 수주 3건을 공개한 만큼, 금번 수주건까지 고려하면 애리조나 공장 가동 공백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 유럽 또한 기존 가동 공백 라인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

–Analyst 박진수

러시아 파이프라인에도… 엑슨모빌, 중국·신흥국 LNG 수요 자신감

- 중국 LNG 수요 확대, 러시아 가스 계약에도 변함없을 듯
- 엑슨모빌, 신흥시장 개척과 골든패스 프로젝트 가속화

Comments

- 중국 운송·해운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확대는 지속될 전망
- 중국 이외의 아시아태평양과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 그러나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 존재해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는 판단

–Analyst 신홍주

캘리포니아, 기후위험 공시 첫 가이드라인 공개…스코프 배출은 초기 의무서 제외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매출 5억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은 2026년 1월 1일까지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이후 2년마다 보고 의무가 발생
- 보고 항목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을 담는 지배구조, 단기·중기·장기 위험과 기회 및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다루는 전략, 위험 식별·평가·관리 절차를 설명하는 위험관리, 위험 대응을 위한 지표와 목표로 구성
- 기업의 초기 보고서에는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는 의무에서 제외

Comments

- 보고의 핵심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대응책을 공개하는 것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시나리오 분석도 정량적 방식 대신 정성적 설명만도 허용, 모회사 보고서에 자회사를 포함한 경우 자회사별 별도 보고는 불필요, TCFD 권고안·IFRS S2 기준 등 다양한 국제적 보고체계 활용 허용 → 기후공시의 최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 부담 크게 줄여
- 금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규제 대응 준비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데 의미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유통/인터넷/섬유의복 담당 서정연 T.02)2004-9534 / seo.jung-yeon@shinyoung.com

F&F(383220.KS)

매수(TP 100,000원)

More Attractive, More Active in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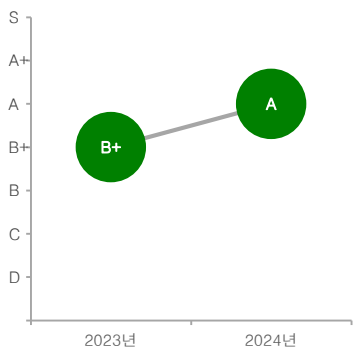
현재주가(9/12) 69,7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B
Bloomberg	–	–	–	–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9. 12)

시가총액(억원)	26,700
배당수익률(25F,%)	2.2
외국인지분율(%)	10.4
주요주주 지분율(%)	
F&F홀딩스 외 6인	62.8 %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8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0	-10.2	-1.7	21.9
KOSPI대비 상대수익률	4.3	-22.8	-25.5	-7.7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4.03	3.81
폐기물 발생량	톤	1,041	940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0.22	33.27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안전사고 수	건	–	–
기간제 근로자 비율	%	4.0	3.2
여성 근로자 비율	%	61.8	62.1
사회 공헌지출	억원	7.5	34.7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1 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배제
배당 실시	결산배당 (1 회)
이사회 운영 실적	7, 사외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작년 실적 뒷걸음질한 F&F, 배당 유지로 '주주환원정책' 선택 (비즈니스포스트, 25.03.17)

- 2021년 421억 원이었던 배당금은 2022년 610억 원, 2023년에는 648억 원까지 증가, F&F가 배당을 늘린 배경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한 실적 성장이 자리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별도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음

F&F, S&P 글로벌 ESG 평가에서 7위 (패션포스트, 24.11.14)

- F&F는 S&P 글로벌 ESG 스코어에서 67점(100점 만점)을 기록, 2024년 Textiles, Apparel & Luxury Goods 부문에서 상위 3% 이내에 포함되며 7위(전체 188개 기업)에 오름
- 몽클레르, 휴고보스, 케어링이 1~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에르메스는 F&F의 뒤를 이어 8위, LVMH는 9위에 올랐음
- 올해 온실가스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F&F의 의류브랜드를 OEM 생산하는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 공급망 ESG 평가 시스템도 고도화

F&F, 패션 자원 순환 위해 매장 내 의류수거함 설치한다 (패션비즈, 24.11.06)

- F&F는 2022년부터 의류재고를 리사이클한 친환경 섬유패널로 책상, 책장, 수납함 등의 가구를 만들어 아동복지 및 생활 시설에 기부해오고 있음
- 2023년도에는 스톨(간이의자) 가구를 제작해 임직원들과 나누며 의류재고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재사용하는 자원선순환도 추가 이행
- 이번에 마련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될 헌 옷 또한 리사이클 가구로 재탄생돼 아동복지시설에 신발장 가구로 기부할 예정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1년	[S] 여아 지원 사업 '꿈꾸는 소녀' 프로그램 진행
2022년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22년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2023년	[E] FSC 인증 친환경 종이 쇼핑백 도입
2023년	[E] 2040년까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감축 목표 설정, 의류 재활용 활동 개시
2024년	[ESG] S&P Global ESG 평가 최상위 3% 등극
2024년	[ESG]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한국지수 편입
2024년	[E] 디스커버리, 친환경 티셔츠 출시

Going Green with Fashion

F&F는 'MLB', 'Discovery Expedition' 등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1,000개 넘는 매장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음.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등 여러 동남아 지역으로의 확장도 진행 중임. F&F는 패션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환경·사회적 책임을 기업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ESG위원회를 2022년 출범시켜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본격화하였음.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 상위권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성과를 입증하고 있음.

환경 부문에서 F&F는 'Going Green With Fashion'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친환경 원부자재 사용 확대와 자원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MLB와 디스커버리 의류 라인에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FSC 인증 종이 쇼핑백, 생분해성 포장재 등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소비 경험을 제공함. 또한 제조 및 물류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도입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96%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제품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 사업장에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로 확장되고 있음. 사회적 책임 역시 F&F가 주목하는 중요한 영역임. VOE(Voice of Employee) 시스템과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ESG중심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F&F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ESG 경영전략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3년에는 ESG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ESG분과위원회 또한 운영함으로써 ESG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향후 F&F는 패션 산업 특성에 맞춘 ESG 전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주목됨. 첫째, 제품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 소재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표준화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일 예정임. 둘째, 협력사 공급망 전반으로 ESG 기준을 확산시켜 윤리적 조달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임. 셋째,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해 Scope 1, 2뿐만 아니라 Scope 3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장기 목표로 설정할 방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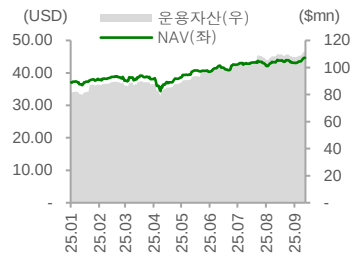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MXF)

Key Facts	
상장일	2020/10/06
기초지수	MSCI Emerging Markets Choice ESG Screened 5% Issuer Capped Index(USD)
구성종목수	518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111.0
시장가격(USD)	44.30
NAV(USD)	44.41
총보수(%)	0.17
운용사	BlackRock

Top Holdings (기준일: 2025.09.09)	
TSMC	5.04%
HDFC BANK LTD	2.96%
SK HYNIX INC	2.70%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H	2.28%
MEDIATEK INC	1.81%
MEITUAN	1.52%
NU HOLDINGS LTD CLASS A	1.25%
NASPERS LIMITED LTD CLASS N	1.24%
DELTA ELECTRONICS INC	1.20%
NETEASE INC	1.19%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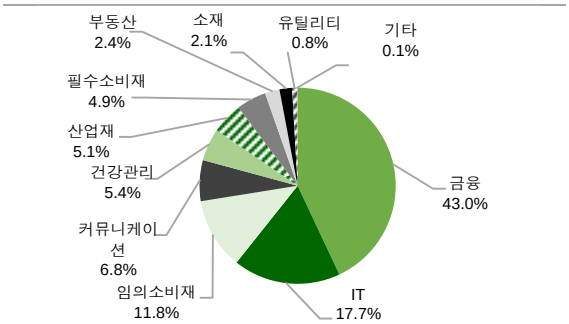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EMXF)는 2020년 10월 상장된 ETF로, 이머징 시장의 대형주 및 중형주로 구성된 MSCI Emerging Markets Choice ESG Screened 5% Issuer Capped Index(USD)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급이 좋은 이머징 지역의 대형주 및 중형주로 구성되어 있음. ESG Advanced 지수는 ESG Aware 지수 대비 더 강력한 제외 항목을 가진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MSCI Emerging Markets Index의 기업을 ESG 위험 및 기회 관리와 논란 점수(0-10, 10이 가장 바람직함)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BBB 등급 이상, 점수 3점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됨. 특히 지수 구성시 수익 기준에 따라 성인 오락, 술, 도박, 담배, GMO,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핵무기, 민간 총기, 영리 감옥 및 약탈적 대출과 관련된 기업 등이 제외되며 이외에도 에너지 섹터에서 화석연료 관련 기업도 제외됨. 또한 EMXF는 분기별로 리밸런싱 되며 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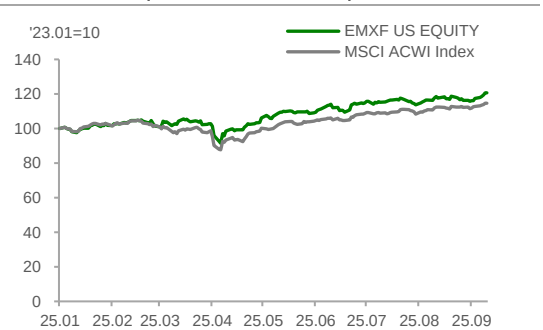
EMXF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즈니스 활동에 연루된 기업을 피하면서 동종 업계에 비해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한층 강화된 ESG ETF임. 지역적으로는 중국(26.84%), 대만(18.83%), 인도(14.72%), 한국(9.13%), 브라질(4.81%), 남아프리카공화국(3.87%)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ESG 논란이 없고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신흥국 시장의 기업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EMXF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0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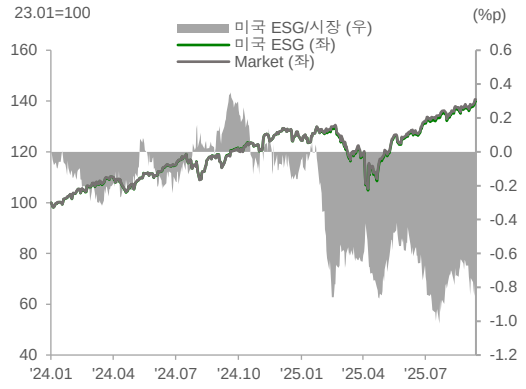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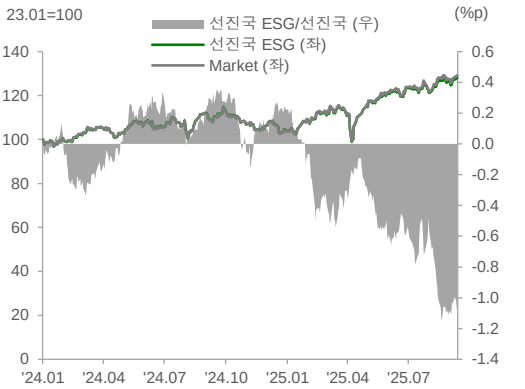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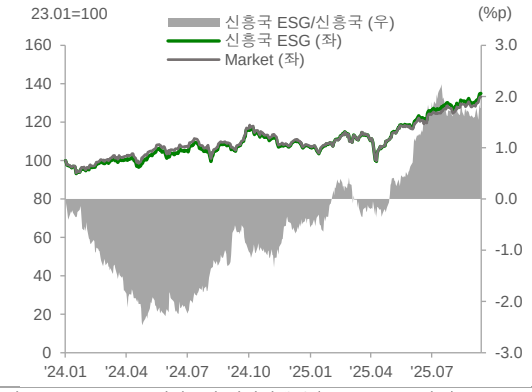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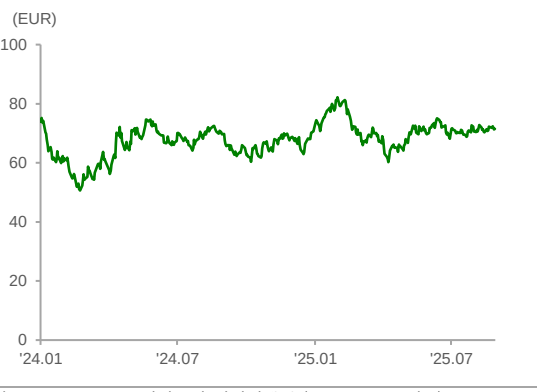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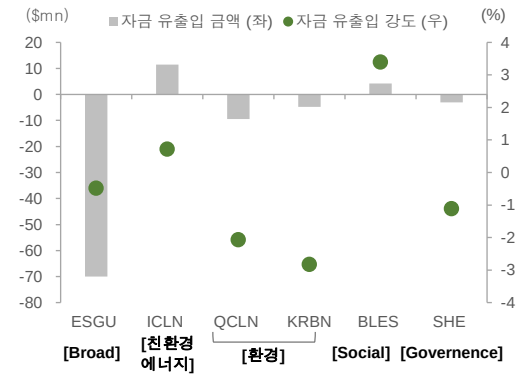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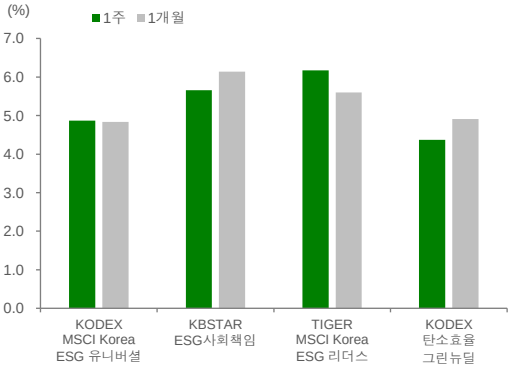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80,628	60	80.6%	62.5%	80,628
2	7,350	13	7.3%	13.5%	7,350
3	6,183	12	6.2%	12.5%	6,183
4	5,417	5	5.4%	5.2%	5,417
5	394	3	0.4%	3.1%	394
6	39	3	0.0%	3.1%	39
ESG 전체		**100,011**	**96**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4,491	1.67	2.37	8.90	17.84	-70	-201	-0.5	-1.4
	ESGV	11,436	1.65	2.74	9.78	18.95	54	170	0.5	1.5
	SUSL	907	1.79	1.95	8.03	18.90	-84	-176	-9.3	-19.5
	NULV	1,806	0.63	2.23	5.30	9.99	-3	13	-0.1	0.7
	NUSC	1,202	0.77	5.91	9.88	14.90	-20	-83	-1.7	-6.9
	ESGE	5,326	3.26	4.46	9.25	20.30	-82	-77	-1.5	-1.4
	ESGD	10,100	1.73	2.25	2.71	12.36	0	266	0.0	2.6
	EAGG	4,163	0.56	1.66	2.34	2.32	76	378	1.8	9.1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590	0.08	6.89	10.61	27.89	11	-187	0.7	-11.8
	TAN	727	-4.54	13.37	22.05	29.72	-3	-213	-0.4	-29.3
Environment	QCLN	456	0.52	6.48	18.34	31.72	-9	-137	-2.1	-30.0
	SPYX	2,360	1.63	2.29	9.12	18.06	6	46	0.3	1.9
	CRBN	1,065	1.90	2.55	7.43	17.03	-11	-51	-1.0	-4.8
	KRBN	168	1.91	7.09	6.36	15.10	-5	-47	-2.8	-28.2
Social	BLES	124	1.11	2.99	5.13	13.04	4	4	3.4	2.9
Governance	SHE	275	1.39	2.05	3.52	11.79	-3	3	-1.1	1.2
	JCTR	7	1.58	2.28	8.51	17.13	0	-2	0.0	-28.5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92	4.87	4.84	17.40	30.66	0.0	-20.8	0.0	-22.5
FOCUS ESG 리더스	129	3.59	4.79	11.67	26.74	0.0	50.0	0.0	38.9
KODEX 200ESG	410	5.18	5.59	17.83	30.17	0.0	-65.1	0.0	-15.9
KBStar ESG 사회책임	806	5.66	6.14	17.55	33.00	-39.7	-1,720.9	-4.9	-213.6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88	4.86	4.81	17.09	32.11	0.0	3.8	0.0	4.3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92	6.17	5.60	17.68	32.33	-3.3	-42.9	-3.6	-46.6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268	4.37	4.91	15.21	29.59	0.0	-17.2	0.0	-6.4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11	4.39	4.95	14.70	30.30	-10.5	-10.5	-9.5	-9.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99	4.41	4.91	14.71	29.95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12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5.09.01) 엑손모빌 "석유 하루 1억배럴 지속" vs 국제기관 "석탄 수요 감소는 공통 시나리오" - Impact-on

엑손모빌, 석유·천연가스 소비 점점 증가할 것… EU 급진적 에너지 정책 비판
석탄 발전량 최대 94% 감축 예상… 석탄 의존 감소는 '불가피해'

(2025.09.01) 차지포인트·이튼, 양방향 충전 공개…트럼프 정책 후퇴에 美 배터리 수요 56% 급감 - Impact-on

CNAF, 민간 SAF 공장 투자…중국 저탄소 항공연료 확대 가속
세계 2위 항공유 시장, 규제 전 대비

(2025.09.01) 英 에디, '에너지 효율 창문 코팅·태양광 구독모델·배양 소고기' 등 8월 혁신기술 6선 발표 - Impact-on

1. 열손실 줄이는 차세대 창문 코팅
2. 초기비용 없는 태양광 구독모델
3. 토양 건강 지키는 음향 센서 솔루션
4. 카카오 열매 전량 활용하는 초콜릿 가공 기술
5. 곰팡이 발효로 만든 차세대 천연 향료
6. 두께와 식감 구현한 배양 소고기 기술

(2025.09.03) 투자·관광업 부담 완화 앞세운 EU, 항공·해운 연료세 2035년까지 유예 추진 - Impact-on

회원국 합의 난항… 기후 대응보다 '산업 경쟁력' 유지 우선
항공업 "세금은 에너지 전환 투자 재원 잠식해" 반발

(2025.09.03) 기아, 가축분뇨 자원화로 농촌환경 개선·에너지 자립 선도 - ESG경제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향후 3년간 홍성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 확대 등 지원

(2025.09.05) 글로벌 완성차 녹색철강 성적표…볼보·테슬라 앞서고 토요타는 부진 - Impact-on

글로벌 녹색철강 선도 기업, 볼보·메르세데스·테슬라
EU, 녹색철강 의무화 추진

(2025.09.09) 현대차, 뮌헨 IAA서 첫 소형 전기콘셉트카 '콘셉트 쓰리' 선보여 - ESG경제

아이오닉의 준중형, 중형, 대형 라인업에 소형까지 범위 확장 예정
'에어로 해치' 디자인으로 공력성능 향상…커스터마이징 위젯 탑재
현대차, 'IAA 모빌리티 2025' 오픈스페이스 부스서 전기차 7종 전시

(2025.09.12) CATL, 유럽 전용 LFP·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고가 배터리 전략 수정 - Impact-on

CATL, 유럽 시장 전용 저가형 LFP 배터리 출시
CATL 헝가리 공장, 내년 초 본격 가동

G (지배구조)

(2025.09.01)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4000억원 이달 조기 소각 - ESG경제

국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
주주환원율 44%까지 기대...올 주가 44% 상승

(2025.09.03) 밸류업 공시하니 주가 더 올랐다...평균 32%↑, 시장수익률 상회 - ESG경제

한국거래소 공개...코스피 1.3%p, 코스닥 4.1%p 초과수익 시현
밸류업 공시기업 162개사로 늘어...코스피 126곳, 코스닥 36곳
자사주 매입, 배당확대 흐름 이어져..."자본시장 체질 개선 기여"

정책 ESG 뉴스

ESG

(2025.09.12) SEC, EU '이중 중요성' 포기 촉구…美 자본시장 우위 확보 의도 노골화 - Impact-on

미 SEC, 재무 중심 공시만 강조
미국, 자본시장 경쟁력 지키기 목적
이중 중요성, 유지와 수정 사이 갈등 심화

E (환경)

(2025.09.02) 트럼프, 美 해상풍력 지원 9454억원 전격 취소…12개 프로젝트 직격탄 - Impact-on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지원 전면 취소, '낭비적 사업' 규정
해상풍력 전선 전방위 압박…레볼루션 윈드도 제동
오는 11월, COP30 앞두고 '기후 논의 반전' 시험대

(2025.09.02) EU, 2026년 러시아산 석유·가스 신규계약 금지…2028년 수입 전면 중단 - Impact-on

단계적 금수 일정 확정…2026년 신규 계약 금지
원산지 추적·투명성 강화…회원국 다변화 계획 제출 의무

(2025.09.02) EUDR 올해 말 시행 앞두고…인도네시아, BRICS 연대해 '독자 표준' 마련 나서 - Impact-on

EUDR에 대항해서 BRICS·CPOPC 중심 '독자 표준' 구축
인도네시아, ISPO 의무화에도 소규모 농가 인증 더뎌
말레이시아, MSPO 2.0으로 추적·노동 기준 강화

(2025.09.05) EU, CBAM 편법 차단 대책 마련…국가 단위 배출계수 검토 - Impact-on

EU, 중국 겨냥해… 저탄소 제품만 골라 EU 수출 막아야해
공청회·산업계 요구… '국가 단위 배출계수' 검토
알루미늄 산업계, "CBAM 간소화 및 적용 확대 필요"

(2025.09.06) 캘리포니아, 기후위험 공시 첫 가이드라인 공개…스코프 배출은 초기 의무서 제외 - Impact-on

기후 리스크 영향 제한적… 금융지원 배출량 첫 공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공개… MDB 전반 확산 전망

(2025.09.06) 오스테드·美 동북부 2개 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레볼루션 윈드' 중단 취소 소송 - Impact-on

개발사·주정부 동시 제소… "불법·무근거 중단"
트럼프 행정부, 풍력 전방위 압박

(2025.09.10) 트럼프 행정부, 해상 탄소저장 규제 본격화…업계 투자·세제 혜택 맞물려 - Impact-on

해상 탄소저장, '통합 규제계획' 핵심 과제로 부상
반쪽 짜리 계획? 파이프라인 안전 규제 빠져

(2025.09.10) 캘리포니아, 해상 송유관은 조이고 내륙 시추는 푼다…휘발유값 압박에 절충안 - Impact-on

송유관 안전검사 강화 추진…세이블 프로젝트 직격탄
내륙 시추 문턱 낮추는 법안…환경단체 강력 반발

(2025.09.11) 중국 에너지 전환 가속…세계 화석연료 소비 5년 내 감소국면 진입 - Impact-on

올 상반기 중국 화석연료 발전량 지난해 대비 2% 줄어
중국의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설비, 기하급수적 성장

G (지배구조)

(2025.09.12) 상법 개정 앞둔 기업들, 내년 주총 리스크 점검…"선제 대응·정관 개정 시기 중요" - Impact-on

상법 개정 목전…선제 대응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행동주의·디지털 플랫폼 시대… 주주 소통·사전 설득이 관건

일반 ESG 뉴스

ESG

(2025.09.12) 지속가능 펀드, 전통펀드 수익률 앞질렀다...장기투자도 유리-ESG경제

모건스탠리 보고서...올해 상반기 전통펀드 대비 3.3%p 초과 수익
2019년來 최대 초과 성과...유럽·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성과차 견인
장기적으로도 성과 우수...자금 유입세는 여전히 전통펀드 더 강해

E (환경)

(2025.09.01) 전 세계 해상풍력 4분의 3 중국 설치…수출 확장은 안보·비용 난관 Impact-on

중국,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키워…밍양의 쌍두 터빈 '오션X' 대표적
건설 프로젝트에 가까운 풍력 사업…中 원가 우위에도 해외 진출 쉽지 않아

(2025.09.01) 열 스트레스 대응, WHO 지침부터 기업 현장까지… 기후 적응 시장 2050년 4배 성장 - Impact-on

온도·습도·연령에 따라 '열 스트레스' 달라…개인별·작업별 맞춤형 기준 필요
기후 적응 시장, 2050년까지 4배 성장 예상
폭염은 기업 리스크로 직결

(2025.09.04) 농업 분야에서도 AI가 맹활약...기후 대응과 탄소 관리 속도 높인다 - ESG경제

클라이밋Ai·NEC, 아프리카 농업 위한 AI 기반 기후 적응 모델 개발
퍼레니얼, 베라 승인받은 최초의 디지털 토양 탄소 정량화 도구 VT0014 출시
AI 기술, 농가의 투자 효과 분석부터 탄소 시장 참여까지 혁신 가속

(2025.09.04) 블루 카본 크레딧 공급 부족...크레딧 발행 프로젝트 19개 불과 - ESG경제

8월 말 블루 카본 크레딧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무결성 논란 적어 크레딧 구매자들이 선호
네이처 논문, 블루 카본 시장 잠재력 현재의 50배

(2025.09.04) 네덜란드 연기금 PFZW, 블랙록 23조원 위탁 해지…기후 리스크 대응 불만 - Impact-on

PFZW, 재무 성과·리스크·지속가능성을 동등하게 고려
다른 네덜란드 연기금도 '이탈 가능성'

(2025.09.09) 말레이시아 EV 시장 급성장…9.6조원 AHTV 프로젝트 가속, 외국인 투자 7조8000억원 유치 - Impact-on

프로톤 EV 출고, 말레이시아 AHTV 전략 본격화
BYD 합류·철도망 확충…동남아 EV 허브로 도약
한편 프로톤은 DRB-하콤이 지분 50

(2025.09.09) 의료 일회용품, 세척비용보다 비싸다…탄소·폐기물 부담도 가중 - Impact-on

일회용품, 다회용품 세척 및 멸균 인건비 포함해도 더 비싸
의료 산업은 세계 5위 배출국 수준

(2025.09.10) 美 전력 재생에너지 비중 신기록 경신 행진…향후 전망 엇갈려 - ESG경제

6월 미국 전체 전력생산 25% 재생에너지...작년 18%서 크게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 신기록 매주 경신...가장 빠르고 저렴한 에너지원
"트럼프 정부 아래서 성장세 주춤" vs "정책과 상관없이 성장세 계속"

(2025.09.10) 전기차는 정말 더 친환경적일까? 연구로 명확해졌다 - ESG경제

미시간대 연구진, 배터리 생산·운행·폐기까지 종합 분석
전기차, 내연기관·하이브리드보다 배출량 최대 70% 낮아
연구진 "개인 차량 선택이 기후 대응에 중요"

(2025.09.11) 온실가스 회계 '공용 언어' 나온다…ISO·GHG 프로토콜, 국제표준 공동 개발 - Impact-on

ISO 권위성과 GHG 프로토콜 현장성 결합…보고·검증 절차도 간소화
시민사회 "자체 감축 약화 우려"…거버넌스 투명성도 과제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0630)	매수 : 86.39%	중립 : 12.93%	매도 : 0.6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F&F	-	-	-	-	-	-	-	-

F&F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5-09-15	매수	100000		
2025-01-23	매수	100000		
2024-02-08	매수	130000	-52.35	-41.15
2023-10-24	매수	160000	-47.81	-40.19